

2020년 하반기 TOP경진대회

#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택연금 가입장벽을 허물다

주택연금부

20.12.16.(수)

# MBN 뉴스("20.9.25)



# | 주택연금부의 여정

**공사법 개정!**

주택연금부

1

도전

2

좌절

3

실패요인 분석

4

재도약

# | 1. 국민의 소리를 듣다



**가입주택 가격기준 완화**  
(시가 9억 원 → 공시가격 9억 원)

**주거목적 오피스텔 가입 허용**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

## | 2. 공사법 개정 진행 과정

### 2016

(16.11월) 9억 초과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 **정부입법** 추진

➔ 일부의원 반대로 무산

### 2018

(18.5월)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 **심상정 의원** 법안 발의  
(18.7월) 준주택 가입허용 **박광온 의원** 법안 발의  
(18.10월) 압류방지통장 도입 **김병욱 의원** 법안 발의

➔ (19.3월) 법안소위 상정

### 2017

(17.6월) 9억 초과 주택 가입허용  
**강효상 의원** 법안 발의

➔ (17.9월) 법안소위 상정

### 2019

(19.5월) 9억 초과 주택 가입허용 **최재성 의원**  
법안 발의

➔ (19.5월) 정무위 회부

(19.3월) 금융위원회 19년 업무계획 '포용금융 확대안'  
공사법 개정안 포함

정무위  
통과 실패

### | 3. 실패요인 분석 및 해결

#### 기금 건전성 악화우려

(문제) 법 개정 시 수요확대로  
기금건전성 악화 우려

(해결) 출연체계 개편으로  
주신보 출연금의 20%를  
주연보 계정으로 이전

**연간 약 700억 원  
기금자원 확보!**

**중장기 재정추계로  
정부의 신뢰도 확보!**

#### 정부 추진동력 부재

(문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얻어 당위성 확보 필요

(해결) 정부에 수차례 방문 설명  
주택연금의 취지와 중요성 강조

**범부처 인구정책TF  
주요정책과제로 선정!**

**기재부 20년 경제정책방향  
주요정책과제 선정!**

[참고] 범부처 「인구정책TF」 中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19.11월)

[참고] 기재부 2020년 경제정책방향 中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19.12월)



	<b>보도참고자료</b>
보도일시	2019. 11. 13.(수) 10:00
배포일시	2019. 11. 12.(화) 18:00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TF」 논의 결과**

-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1.13일(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 동 방안에는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①주택연금 활성화 및 ②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

**2.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① **[가입대상 확대] 가입연령, 주택가격과 주택요건 등을 확대**

- ① (가입연령) 60세 이상 →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확대
- ② (주택가격) 시가 9억원 →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
  - 주택가격 9억원 초과시의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
  - ※ 관련 주공공법 개정안(최재성·강효상 의원안) 既발의
- ③ (주택요건)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토록 개선

②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자(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유연대용신탁)을 활용하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 자동승계\*

\*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음

## 2020년 경제정책방향

2019. 12. 19.

**③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및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금의 보장성 강화
  - ▶ 가입연령을 하향조정(60→55세 이상)하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현실화(시가 9억원 → 공시가격 9억원)
  - ▶ 저소득 고령층(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의 우대 지급을 상향(일반형 대비 최대 +13% → +20%)
  -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 되도록 개선

# 20대 국회 임기 마감. 공사법 개정 법률안 폐기.

ChosunBiz

PICK ⓘ

## 미국 수준으로 키운다던 주택연금... 국회에서 제동

입력 2020.02.25. 오후 1:01 · 수정 2020.02.26. 오전 11:43

 이종현 기자 >

 13  10

   

주택연금의 문턱을 낮춰 고령층의 자산형성을 돕고 생활안정을 지원한다는 정부 계획이 국회에서 막혔다. 1% 중반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2024년까지 미국 수준(2% 중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주택금융공사 내부 목표도 달성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연금 제도 개편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날 법안 통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택연금 제도 개편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택연금부

21대 국회 재도전!

## | 5. 재도약



**국회 30회 방문**  
(‘20년 기준)

**김병욱 의원 협력**

**정무위 협조**



**통합법안  
발의**

1. 가입주택 가격기준 완화(시가 9억 원 → 공시가격 9억 원)
2.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
3.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
4.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 | 5. 재도약



## 국회 30호 ('20년 기...

통합법  
발의

**이데일리**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 Q 정치 청와대·행정 **정당** 국방·외교

### '주택연금 가입대상 시가→공시가 9억원'...김병욱, 주택연금활성화법 발의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대표발의  
"주택가격 상한 2008년된 뒤 개정 안돼"

등록 2020-06-16 오후 2:16:41  
수정 2020-06-16 오후 9:35:35

가 가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는 '주택연금 활성화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신민준 기자  
N 기자구독

f t  
✉ 📄  
☆스크랩  
🔗 URL복사

지금 열독 중  
[주인승변하드]



## 성무위 협조

9억 원)

## | 6. 비상

# 드디어 공사법 개정법률안 통과!

20.12.8  
공포 시행

20.12.1  
국무회의 통과

20.11.19  
본회의 통과

20.11.18  
법사위 통과

20.9.25  
전체회의 통과

20.9.22  
법안소위 통과

주택연금부

## | 7. 기대효과

가입장벽 해소, 약 135만 신규 수요 확대



고령층 노후생활 보장체계 강화

연금수급권 보장 및 유희공간 임대로 노후소득 증대  
노년기 삶의 안정과 노인문제 해결에 기여  
소비진작 효과를 통한 내수 촉진 및 국민경제 활성화



# 주택연금의 100년을 준비하다

감사합니다

- 주택연금부 -